

‘적발보다는 예방’... 확 달라진 선거법 단속

전남도 선관위, 사전 모니터링 256건 위법 차단 군수 측사 등 행사 현장에서 27건 중단 시키기도

공직선거법 위반 단속이 ‘적발’ 위주 보다는 사전에 위반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위주로 변하고 있다.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올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행정·의정 활동에 대한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모니터링 제도가 선거법위반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전남도 선관위는 올 상반기(2월1일~6월30일)와 하반기(7월1일~9

월30일) 두 차례에 걸친 행정·의정 모니터링 결과 총 256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차단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선관위는 하반기의 경우 951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156건을, 상반기에는 915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127건의 위반행위를 차단했다.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40건이 증가했는데, 이는 내년 지방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위반행위 소지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요 사전 시정건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금품제공 수반사업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각종 행사 개최 후원이 7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시상 및 포상 표창 47건 ▲홍보물 발행 34건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금품제공 12건 ▲의정활동 보고 7건 ▲광고 출연 5건 ▲연두순시 2건 등이었다.

금품제공 수반사업의 경우 법령 등의 근거 없이 모범음식점에 입식 테이블을 제공하거나, 법령 등의 범위에 벗어나 수확여령 경비 지원, 쓰레기 종량제 설문조사 응답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 경우가 주요 시정 대상이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향우회 행사에 화환을 제공하고, 모 단

체 출반식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군수, 지방의원 명의의 효행상 등 시상식 때 부상을 수여하거나 모 축구대회 우승 트로피에 의장성명을 게재한 행위, 연두순시 참석자들에 대한 제3자의 기념품 제공 등도 이번 모니터링에서 시정조치됐다.

특히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진행되는 단계인 행사 현장 등에서 중단시킨 건수도 총 27건에 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가 특별한 현안 없이 관내 조합의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석해 축사를 하는 행위와 군수의 라디오 광고 출연 행위 등이 있었다.

전남 선관위의 행정·의정 모니터링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경우 연두순시,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 시상·표창, 홍보물 발행, 광고 출연, 기타 금품 수반사업 등 7개 분야에서,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은 업무추진비와 의정활동보고, 시상·표창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전남 선관위 관계자는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의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활동에서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시장·군수·구청장 159명 강원 평창서 성명서 발표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 기초단체장들은 24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 5기 4차년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당 공천 때문에 주민선택권 왜곡, 지방의 중앙정치 예측, 공천에 따른 비리와 잠을 등 역기능이 발생해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공천제 폐지를 서둘러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8대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

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체신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지만,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공천제 폐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당론 채택을 하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 당론’을 조속히 확정하고, 민주당 또한 공천제 폐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최측세 영구 인화와 무상보육 등 복지 확대에 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보전 대책에 대해 현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저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치러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11%에서 16%까지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국고보조율 10%를 20%까지 올리는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총회에는 159명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 한눈에

28일부터 서울서 박람회 새정부 비전·전략 제시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와 공동으로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근대미술관 2층 대홀에서 ‘희망의 새 시대, 성숙한 자치, 행복한 주민’을 주제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지방자치 부활원년 개정일(1987년 10월29일)인 10월29일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지방자치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20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지방자치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평가와 새 정부의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과 전략도 제시된다.

박람회 전시관은 크게 지방자치의 발전취를 돌아보고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정책홍보관, 각 자치단체별 주요성과와 미래비전을 소개

하는 시·도 홍보관, 지역의 우수특산물과 향토명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향토자원 전시관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 정책홍보관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지방자치 관련 기록물과 현재의 우수 정책사례를 전시하는 한편,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향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코너로 구성된다.

시·도 홍보관은 전체 박람회 주제에 부합하는 시·도별 주요성과와 미래 비전 등을 시·도가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지역특색에 맞게 홍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향토자원 전시관에서는 영광의 글비, 강원 인제의 황태, 전북 임실의 치즈, 충남 홍성의 한우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농축수산물 및 공예품 등 지역 특산품을 소개하고 할인 판매한다.

오는 29일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지방자치의 날 제정 경과 보고’, ‘지방자치발전 유공자 포상’이 실시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알리는 지방자치 현장시 선포문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발전 정책 세미나가 열려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맞춤형 지역발전 실현, 주민행복 서비스 구현 등을 위한 학술적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도장 대형 태극기 '독도의 날'을 하루 앞둔 24일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어린이들이 손도장을 찍어 만든 대형 태극기 위에서 손을 흔들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 날은 독도 관련 대한민국 칙령이 1900년 10월 25일 제정된 것을 기념해 독도수호대가 지난 2000년 처음 제정했다. /최권일기자 choi@kwangju.co.kr

19세기 日발행 지도에 동해→‘조선해’ 표기 확인

안행부, 독도 고지도 복원 공개

19세기 일본이 직접 발행한 지도에서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목판본 조선전도에서는 독도를 ‘우산국’으로 명시했다.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25일 독

도의 날을 맞아 독도, 동해와 관련된 고(古)지도도를 복원·복해해 24일 공개했다.

1844년 일본이 발행한 고지도인 신제여지전도(新製輿地全圖)는 세계를 동방구와 서방구로 구분하고 조선과 일본 사이의 해역을 ‘조선해’로 표기했다. 이 지도는 19세기 최고의 일본

인 학자인 미쓰리소 쇼고(實作省吾)가 프랑스인이 만든 세계지도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다. 지도는 일본 동쪽 바다는 ‘대일본해’로, 태평양은 ‘대동양’으로 각각 표기했다.

일본이 메이지유신 당시 동해를 조선해로 표기한 고지도는 이번이 복원된 신제여지전도 외에도 지구만국산해여지전도(1785년), 신정만국전도(1810년), 여지유대주(1835년), 지구만국산해(1853년) 등이 있다. /연합뉴스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검증 법개정 촉구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24일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검증을 위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경영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방공기업 사장 선임을 위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

라며 “그간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기업 사장 등의 인사검증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상위법에 막혀 번번이 좌절되거나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와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北 ‘억류 남한 주민 6명 25일 돌려보낼 것’

남측에 통보·입북 경위 파악 안돼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6명을 25일 돌려보내겠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북한이 오늘 오전에 조선적직자사 중앙위원장 명의의 전봉문을 통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을 내일 오후에 판문점을 통해 보내겠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돌려보내겠다는 6명의 신원이나 자진탈북 여부 등 정확한 입북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10년 2월 26일 불법 입국한 남한

주민 4명을 단속해 조사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어 이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이들의 신원인수를 위한 신원 확인을 요청했으나 북측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늦었지만 북한이 지금까지도 인도적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들 6명의 신원사항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을 거쳐 이들의 신원을 인수한 뒤 관계기관과 함께 입국경위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화정동 예식장
대지:1094㎡ 건물:4489㎡
감정가격:41억5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월출동 공장
대지:광주시소유 건물:2353㎡
감정가격:21억6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금남로4가 빌딩
대지:800㎡ 건물:4834㎡
감정가격:69억3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쌍암동 나이트클럽
대지:3238㎡ 건물:3090㎡
감정가격:89억7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매진행중이거나 정지중인 물건을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굿모닝타운 분당 사무실)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충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777㎡(235) 공사지가 17억7천선 오피스텔, 상가개발조합 9억6천
- 함평군 영암읍 살리는 여관 대지 320평 건물211평 객실 21실과 함께 있는 2층 주거지 504평 주거지에는 소형 APT나 다세대주택 대출4억 교환도 가능 10억5천
- 월곡·다세대주택지 북동상업지 64평 매도1억6천
- 계림동 구호원건물 대지 542㎡(164) 건물 1200평 요양시설·병의원·현의원·사육동에 적합 18억
- 대인동 소방도점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주택 9억5천
- 조선대학교앞 동명동 고시원과 주택 및 사무실용 건물4동 대지321평 건물592평 고시원176실 전세5천만원에 월 3500만원선 수입에상. 대출9억 임대수익생활에 적합. 소유권 이전은 법인이전 가능함 17억
- 공장부지 나주시 남평읍 비행정도로부근 2192㎡(663)와 주택 매도 2억4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7개허가. 주택가격 12억가능. 투자에 적합 7억4천
- 매도. 신안군 지도읍 아파트. 중도에 슬로시티와 엘도라도 가는 길. 바다가 보이는 별장용APT. 모임이나 회사의 복지시설도 적합. 30평과 41평이 있고 대출은 8천에서 1억가능. 가격은 전세10000에 월40선. 매대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구) 두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물307㎡ 감정가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물2821㎡ 감정가46억 최저가26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물2309㎡ 감정가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동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물137㎡ 감정가1억8천만
-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물161㎡ 감정가1억 최저가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물297㎡ 감정가1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17억
- ▷ 강진읍 송덕리 냉동.저온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27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대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녹지 대지.전 2115㎡ 매대5천만(조정가)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념여고 건너편 ◀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